光州日報

제1833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4월 10일 (음력 3월 15일) 금요일

공연을 앞두고 함께 포즈를 취한 '아마레챔버오케스트라' 단원들.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깃들어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행복 전령사' 영암 영애원 아마레챔버오케스트라

아이들의 '희망 연주' 시작된다

자원봉사·후원자 뒷받침 24일 목포서 데뷔

"사랑 받은 만큼 나눠야죠" 순회공연 계획도

'꿈과 희망을 연주하다'

첼로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김은지(16)·지영(14)양 자매는 요즘 매일 실내악 합주 연습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악장을 맡고 있는 박정선(17)양도,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듬직한 김주석(17)군도 마찬가지. 바이올린 파트 청일점인 박영민(14)군도 빠질 수 없다. 맏언니인 신혜원(21)양은 자신의 연주뿐 아니라 동생들까지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다. 〈관련기사 13면〉

이들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모두 아동복지시설 영암 영애원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한가족'이자, '아마레챔버오케스트라(단장 김명곤·이하 아마레) 단원들이다.

'아마레'가 오는 24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정식 데뷔 무대를 갖는다. 지난 2003년 오케스트라가 꾸려진 후 양로원, 병원 등에서 작은 공연을 펼친 적은 있지만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애원에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은 두 살부터 스물 두 살까지 모두 74명. 이중에서 중·고생 18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부자가 참여하고, 최근 광고에도 출연해 화제가 된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와는 규모 등에서 다르지만 '음악'으로 사랑을 전하고, 음악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레'는 소박한 첫발을 내딛는 행복 전령사들이다.

'아마레'의 탄생은 많은 이들이 함께 일군 '작은 기적'이다. 합창단을 꾸리거나 단일 악기로 팀을 구성하는 건 쉽지만 실내악단을 운영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현악기는 꾸준히 레슨을 받지 않으면 쉽게 실력이 늘지 않는 터라 지속적인 교습이 필수다. 또 다양한 악기를 가르쳐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모든 난관은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쳐온 자원봉사 선생님들, 작은 정성이라도 기꺼이 보탠 든든한 후원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해소할 수 있었다.

'아마레'는 현재 무럭무럭 커가는 중이다. 우선 5월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돔아트홀에서 열리는 아동복지시설 축제에 전남 대표로 참여한다.

기회가 닿는다면 전국 순회연주회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시설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주회를 꿈꾸고 있다. 또 장애인 시설 등에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연주회도 지속할 계획이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김한솔(14)양은 "앞으로 플루트를 전공하고 싶고, 지금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선생님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미래위해 도청별관 결단을"

박광태시장·강박원의장·최협 조성위원장 공동 촉구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최협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공동발표문을 내고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9일 광주시청에서 '구 전남도청 별관 관련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미래가 걸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많은 정부예산이 사장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자체가 표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등은 "시민들은 양보와 타협으로 하루빨리 전당공사가 본격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장기화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동성명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하며 공사를 막고 있는 5월 단체에 대해서는 공사 정상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별관 철거 반대 농성중인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10일 결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5월 단체에 국한됐던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주장이 학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남대 나간채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교수 45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역사유적은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며 옛 전남도청 별관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5.18유적지 도청별관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글을 통해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사회에서 5·18유적지인 옛 전남 도청별관에 대한 존폐문제가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며 "수차례 토론이 거듭된 뒤 최근 건물 철거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적이 아름답지 못하고 효용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고유한 광주항쟁의 정신이 스며있는 도청별관을 완전 철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盧 前 대통령이 돈 요구 청와대서 100만불 전달"

박연차 회장 검찰 진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관련기사 4·5면〉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돈을 요구해 100만 달러를 가방에 담아 한 번에 전달했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이를 청와대 경내로 들여왔다고 보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게시한 사과문을 보고 권양숙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처음 알았다"며 "차용증도 없고,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빌려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미 "노 전 대통령 측 요구로 10억원을 그냥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돈이 권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에게 간 돈으로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과 함께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작년 초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500만 달러의 성격 규명 등을 위해 건호씨와 연씨를 노 전 대통령에 앞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위원장은 1998년 9월, 2003년 9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 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생존해 있던 1993년 4월 처음으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으며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네 번째 연임하는 것이다.

1998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